



요셉을 대면한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는 요셉이 장성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믿지 못하는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마침내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기운이 소생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아들로 여겼던 요셉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가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의 기쁨은 정말 형언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죽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서 꼭 보리라.”

니콜라스 윌터스포트라는 예일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25살 아들 에릭이 등반사고로 죽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에서 그 슬픔을 적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리라고 늘 생각해 왔던 복음의 요소들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부활의 소망을 생각해 보아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난 죽음을 바닥 없는 나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에릭을 가고 없다. 지금 나는 에릭과 얘기할 수 없고, 지금 그를 볼 수 없고, 지금 그를 껴안을 수 없으며, 지금 그의 장래 계획을 들을 수 없다. 바로 그것이 내 슬픔이다.” 한 친구가 말합니다. “잊지 말게. 에릭은 주님의 품안에 있네.” “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에릭을 내 품에 다시 돌려주지는 않는다. 그것이 내 슬픔이다. 내 슬픔이 그것일진대, 그를 되돌려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위로가 내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야곱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수십 년을 슬픔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슬픔의 과거가 사라지고 다시금 요셉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흩어져(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있던 모든 식구들이 상봉하는 명절입니다. 거기에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요셉 가족의 진정한 하나됨, 오랫동안 맺힌 것이 풀어지는 영혼의 자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성인의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됨이 일어나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오늘은 추석연휴관계로 오전 예배(1부, 2부)만 드리고, 오후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❷ 11월에 필리핀선교지(정원의 선교사)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방문 일정은 교회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❸ 주보 안에 넣어드린 10월 중보기도카드의 기도제목을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❹ 송병호 형제(이몽옥 권사 子)가 9월 24일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주 식당봉사 - 2셀

#### ◆ 10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10/10	강북노회 정기회(철원중앙교회)
10/28	임직감사예배

####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

2023년 10월 1일 40호

- 2023년 성은교회 표어 -

"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 (사 43:1~7)